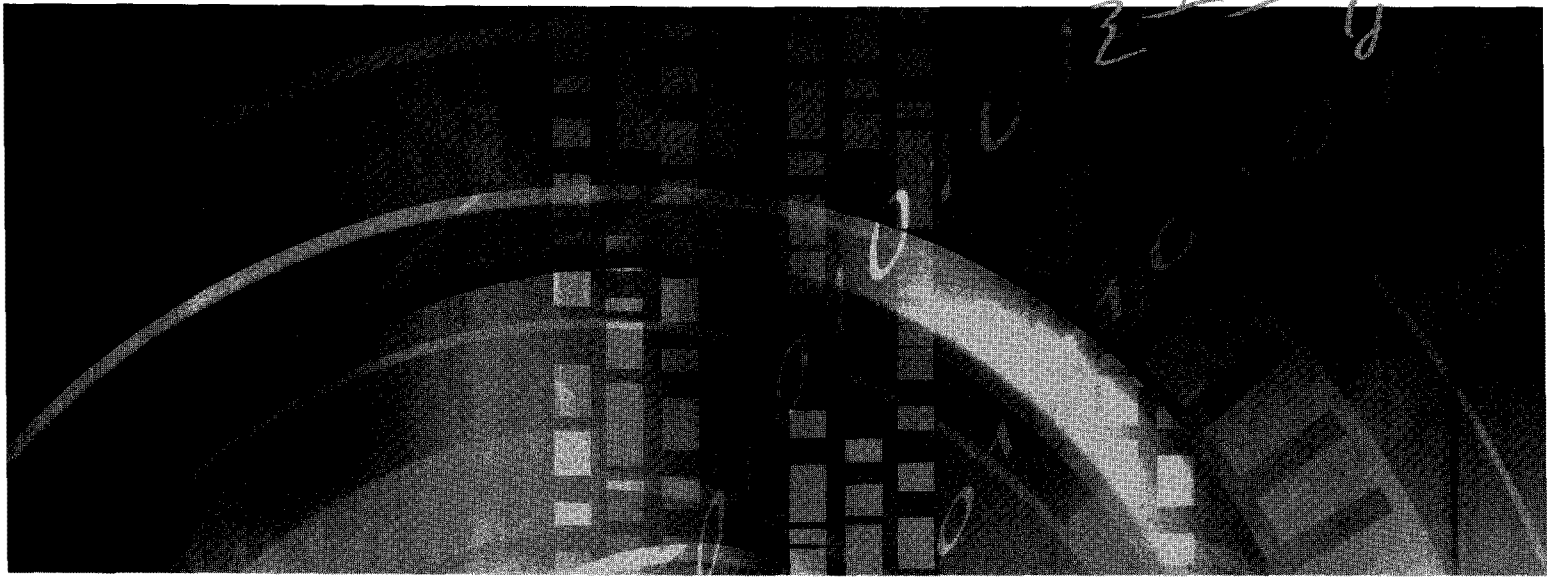


크로즈업
클로즈업



광학세계 창간 20주년 기념 설문조사

“광학계의 비전제시와 광학인의 사랑방 역할에 최선”

한국광학기기협회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광학세계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독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89년 4월 창간되어 2009년 3월로 통권 120호가 되는 광학세계는 그간 광학분야 전문잡지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20년 동안 내용적인 변화는 물론 외형적인 변화도 있었다. 초기 4×6배판에서 5×7국배판으로 변화됐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과월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편집스타일과 기획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광학세계를 통해 산업 및 업계 동향 파악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 소개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다. 광학세계는 이와 같은 독자들의 생생한 평가와 제안을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광학전문잡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편집자 주〉

정리/편집부

광학세계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67명이다. 이중 협회 회원사는 41명(61%), 비회원사는 18명(27%), 학계 및 유관 연구소 종사자는 6명(9%), 기타 개인 2명(3%)이다.

응답자들이 광학세계를 접하게 된 계기는 '회사를 통해서'가 40명(6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학교 및 도서관을 통해서'가 15명(22%), '전시회 및 세미나를 통해서'가 8명(12%),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가 3명(4%), 기타 의견 1명(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및 '시의성(時宜性)' 갖추기 위한 고민 필요

광학세계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편집구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51명(76%)이 '현재의 구성이 좋다'고 했고, 나머지 16명(24%)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광학세계의 '편집기획 틀'에 대한 보기를 주며 독자들이 주로 즐겨보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58명(88%)이 '고정적으로 즐겨보는 분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주로 광학세계의 Special Issue란의 기획특집을 비롯하여, Features란의 해외리포트, 지상공개강좌, Special Thema란의 이것이 신기술이다와 기술리포트, 해외 연수기 등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포토클리닉과 전시회 리뷰를 즐겨본다는 답변과 회원사 탐방, 광학R&D산실, 회원사 동정 등을 즐겨본다는 답변도 다수 나왔다.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사진기자재업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지면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어 사진기자재 관련 지면 보강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

광학세계의 난이도에 대해서 38명(58%)이 '무난한 편'이라고 답했고, 12명(18%)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답했다. 반면 13명(19%)은 '너무 딱딱하다'고 했고, 3명(4%)은 '너무 전문적이다'고 답변하여 광학세계가 다양한 독자층에 쉽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해주었다.

한편, 광학세계의 활용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산업 및 업계동향 파악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동향 파악을 위해서'가 67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업계동향 파악'이 65명(34%)으로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기술 습득'이 51명(25%), '자사 홍보'가 14명(7%), '광고 게재' 4명(2%)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광학세계 과월호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2명(33%)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45명(67%)이 '모른다'고 답하여 오프라인뿐 만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광학세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편집과 기획 필요

광학세계의 현재 편집스타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0명(75%)이 '무난한 편'이라고 답했고, 14명(21%)은 '그대로그가 좋다'고 했다. 그러나 3명(4%)은 '여전히 협회지 스타일이다'고 답하여 현대적인 편집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광학세계의 발간횟수 만족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43명(65%)이 '월간이 좋다'고 답했고, 21명(31%)은 '지금처럼 격월간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계간이 좋다'는 의견이 1명(1%), 기타 의견으로 '격주간이 좋다'와 '매일 인터넷 메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명(3%) 있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독자들은 현재의 제호나 판형, 분량 등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독자들은 현대적으로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학세계를 월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따라서 광학세계가 전문성을 가지면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편집기획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 의견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전문지로 거듭날 터'

마지막으로 편집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독자들은 다양하면서 소중한 의견을 남겼다. 그중에는 편집자에게 보내온 따뜻한 격려의 인사말들도 많았다.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광응용기기, 광가공기기 등 국내외 산업 현황 및 기술현황 기사 확대 ▶해외 시장 동향 및 기술 동향 자료 게재 확대 ▶기초 광학이론을 쉽게 풀어쓴 기사 요망 ▶신상품 적극 홍보 요망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잡지로의 기획 ▶'특별한' 인물 및 취재 내용보다는 '특이한' 인물, 발명품, 사건 등에 관한 기사 확대 요망 ▶회원사중 다수의 업체가 주력 생산중인 감시용 분야에 대한 기사 및 동향자료 확대 ▶최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집중분석 기사 확대 ▶광학세계의 배포처 확대를 통한 적극 홍보 ▶서점 등 시중에서도 광학세계를 쉽게 사 볼 수 있도록 판매 요망 등이다.

이번 창간 20주년 설문조사를 통해 광학세계는 독자들의 의

광학세계 창간 20주년 기념 설문조사

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광학기술 및 시장동향 관련 기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시장동향 및 최신 기술자료를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각계 최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더욱 보강되고 전문화된 광학세계를 기획, 편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독자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느낄 수 있

었다. 광학세계는 독자들이 앞으로도 원고 투고, 아이디어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광학세계 편집부 일동은 항상 독자들의 의견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광학인들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광학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광학전문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광학세계는 2003년부터 기존의 한문로고를 한글로고로 변경하고 판형 및 디자인의 변화를 가졌다.



▶ 창간부터 2002년까지 광학세계의 모습



▶ 1989년 4월 11일 「광학세계」 창간식 광경

크로저
크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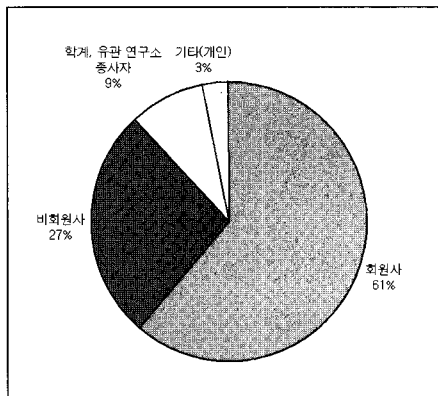


그림 1. 광학세계 설문 응답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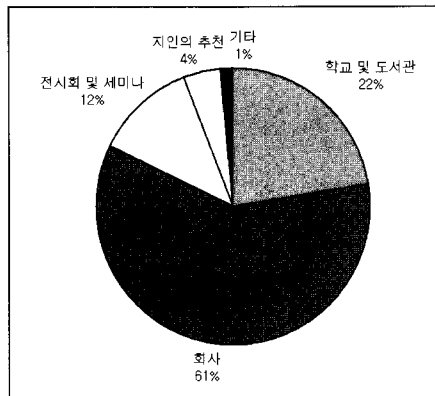


그림 2. 광학세계를 접하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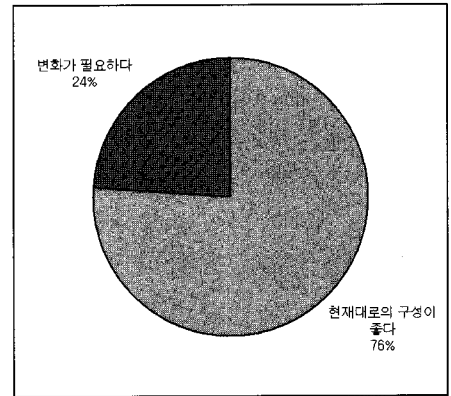


그림 3. 광학세계 구성에 대한 의견

표 1.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회원사	41
비회원사	18
“학회, 유관 연구소 종사자”	6
기타(개인)	2

표 2. 광학세계를 접하게 된 계기

구분	인원
학교 및 도서관	15
회사	40
전시회 및 세미나	8
지인의 추천	3
기타	1

표 3. 광학세계의 구성에 대해

구분	인원
현재대로의 구성이 좋다	51
변화가 필요하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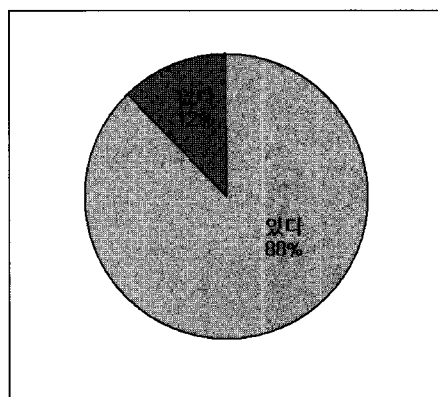


그림 4. 광학세계에 주로 즐겨보는 분야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

표 4. 즐겨보는 분야가 있나?

구분	인원
있다	58
없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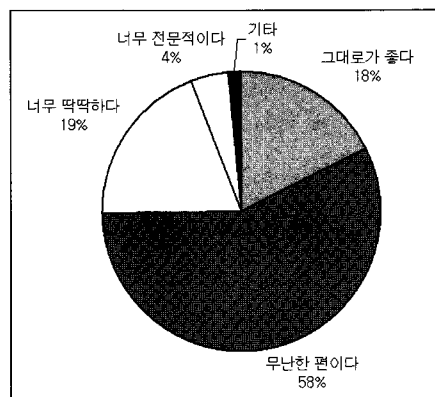


그림 5. 광학세계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

표 5. 기사의 난이도는?

구분	인원
그대로그 좋다	12
무난한 편이다	38
너무 딱딱하다	13
너무 전문적이다	3
기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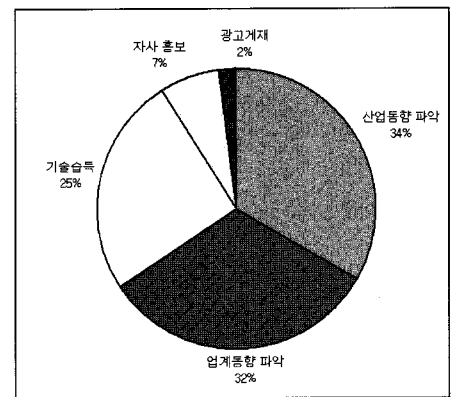


그림 6. 광학세계의 활용도에 대한 답변

표 6. 활용 용도는?

구분	인원
산업동향 파악	67
업계동향 파악	65
기술습득	51
자사 홍보	14
광고계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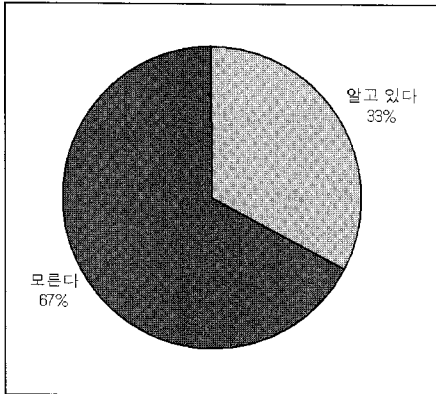


그림 7. 협회 홈페이지 통한 광학세계 과월호 보기 활용

표 7. 홈페이지를 통해 과월호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구분	인원
알고 있다	22
모른다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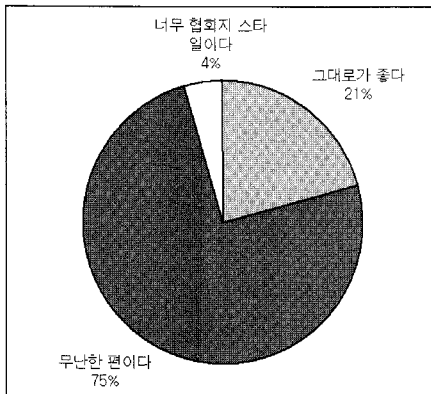


그림 8. 광학세계 편집 스타일

표 8. 편집 스타일은?

구분	인원
그대로가 좋다	14
무난한 편이다	50
너무 협회지 스타일이다	3
편집이 답답하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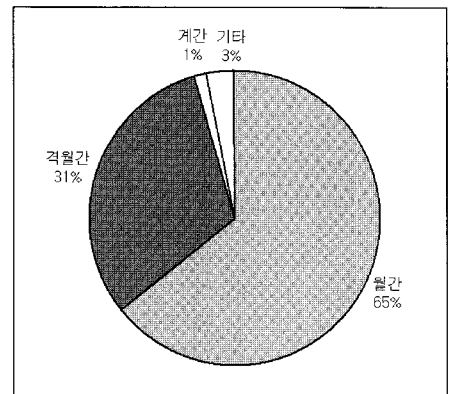


그림 9. 광학세계의 발간횟수에 대한 의견

표 9. 발간횟수에 대해?

구분	인원
월간	43
격월간	21
계간	1
기타	2

Korea Optical Industry Association



www. koia.or.kr 광학세계 클릭

『광학세계』웹진 운영!

그동안 책자로 보시던 『광학세계』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광학세계』를 구독하기 위해서
우송료 1만 2천원을 납부하셨으나 홈페이지상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IA 한국광학기기협회
KOREA OPTICAL INDUSTRY ASSOCIATION

(156-819)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 청보빌딩 4F
TEL 02-3481-8931 FAX 02-3481-8669

크로즈업
클로즈업

<창간 20주년 기념 광학세계 독자 설문조사 내용>

〈표1〉「광학세계」편집기획 틀

분류	꼭지명	성격	분류	꼭지명	성격
Special Issue	1) 기획특집 2) 기획취재 3) 간담회 및 좌담회	산업별 동향 취재	People & Interview	19) 신규회원사 소개 20) 현장포커스 21) 회원사 탐방 22) 광학R&D산실 23) 빛과 생이	광학업체 및 연구소, 인물 탐방, 취재
Features	4) 세미나지상중계 5) 해외리포트 6) 현장기고 7) 지상공개강좌	각종 산업별 리포트 및 기고문		Movement & News	24) 회원사 동정 25) 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26) 광학 신상품 27) 광학인포메이션 28) 광학뉴스라인 29) 사진영상 및 기자재 뉴스
Special Thema	8) 산업정책 9) 이것이 신기술이다/ 기술리포트 10) 해외 연구기/해외 전시회 참가기 11) 포토갤러리	이달의 이슈, 테마별 기사, 최근 기술동향	Miscellany		30) 추천도서 31) 사진이 있는 풍경 32) 여행이야기 33) 웰빙라이프 34) 광학일지 35) 회원명부
Information	12) 광학특허정보 13) 특허Q&A 14) 광학통계 15) 정부지원제도	각종 정보			
Exhibition	16) 국내 전시회 리뷰 17) 해외 전시회 참관기 18) 세계 박람회 정보	전시회 관련 소식 및 정보			

작성자	업체명			주생상품 (광학분야)		
	이름	전화		부서/직위	e-mail	

- 「광학세계」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학교 및 도서관
② 회사
③ 전시회 및 세미나
④ 지인의 추천
⑤ 기타 의견()
- 「광학세계」의 전반적인 내용(표1 참조)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대로의 구성이 좋다. (→ 문항 3번으로)
② 변화가 필요하다. (→ 문항 2-(1)번으로)
2-(1). 위의 <표1>중에 불필요한 꼭지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2-(2). 위의 <표1>에 추가해야 할 꼭지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 「광학세계」에서 주로 즐겨보는 분야(꼭지명)가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① 있다. ()
② 없다. ()
- 「광학세계」에서는 카메라 및 사진기자재, 복사기, 레이저, 광학 부품 및 소자, 광응용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서 특히 자세히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광학세계」의 내용 및 난이도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① 현재 그대로가 좋다.
②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
③ 내용이 너무 딱딱하다.
④ 너무 전문적이다.
⑤ 기타 의견()
- 「광학세계」의 활용 용도는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산업동향 파악
② 업계동향 파악
③ 기술습득
④ 자사 홍보
⑤ 광고개재
⑥ 기타 의견()
- 협회 홈페이지(www.koia.or.kr)를 통해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광학세계」 과월호를 검색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활용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
- 「광학세계」의 편집스타일은 어떻습니까?
① 현재 그대로가 좋다.
②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
③ 너무 협회지 스타일이다.
④ 편집이 답답하다.
⑤ 기타 의견()
- 「광학세계」의 발간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월간이 좋다
② 격월간이 좋다
③ 계간이 좋다
④ 기타 의견()
- 마지막으로 「광학세계」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

※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